

판도 가를 첫 양자 TV토론...이재명·윤석열 전략 고심

여야 내주 호남 출격 메시지 관심
민주 26일 광주서 중앙선대위
이준석 25~26일 여수·순천 찾아
윤석열 손편지 전달 구상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선 판세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설 민심 잡기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물론 양당 지도부도 설 연휴를 앞두고 광주·전남 등 호남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제시할 것인지 주목된다.

20일 이재명 후보 선대위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설 연휴 직전에 정치적 지지 기반인 광주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단순한 지지 호소보다는 호남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방문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 관계자는 "설 연휴를 기점으로 호남에서부터 이재명 바람을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선대위의 분위기"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중앙선대위회의를 오는 26일 광주에서 갖는다. 이날 회의에는 상임선대위원장인 송영길 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인 윤호중 원내대표 등 선대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 호남 민심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호소할 방침이다.

또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할 계획이다.

다만, 광주시당에서는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한 실종자 수습이 이뤄진 이후에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설 연휴를 앞두고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 방문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차'라는 이름으로 무궁화호 열차 4량을 빌려 호남 지역을 순회하면서 시민들과 만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윤 후보의 손편지 전달도 구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는 선거 운동 시작 사흘전까지 전국 가구 10%

에 예비 홍보물을 보낼 수 있다"며 "이를 모두 호남 지역에 할애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오는 25일 1박2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한다. 이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2030에 이어 호남이 정치혁명의 또 다른 근원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전남 여수와 순천을 방문해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 등을 참배하며 대표 취임 이후 꾸준히 호남 끌어안기를 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아직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일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호남을 방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두 후보가 호남에 어떠한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호남 민심은 설 연휴 기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벌일 TV토론을 주목하고 있다. 두 후보의 '진검승부'가 치러지게 되면 호남 민심도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판세가 혼전을 거듭하는 현 상황에서 대선 한 달여 전 굳어지는 설 민심이 전반적인 판세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두 후보 모두 이번 토론을 기점으로 확실한 승기를 잡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TV 토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번 양자 토론에 대비하고 있다.

민주당의 고민은 '달변가'로 알려진 이 후보는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라는 점에 있다. 이에 반해 정치 초보인 윤 후보는 조금만 잘해도 돋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와 공방보다는 정책 비전을 설화하는데 무게를 두면서 차별성을 부각하는 '포지티브 전략'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정치 초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겠다는 각오다. 이번 토론에서 솔직함을 토대로 그동안의 실언 논란을 씻어내고 각종 정책을 선 보여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성동구 원미리엔 댄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JM, 우리가 원하던게 이거잖아 - 리아킴, 백구영, 영제이, 시미즈, 하리무, 루트와의 만남'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문화예술인 연 100만원 기본소득...문화기업 50만개 일자리"

'세계2강' 문화콘텐츠 비전 제시

2030세대 친화 전략 정책 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일 K-콘텐츠의 주역인 문화예술인들과 만나 전문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화콘텐츠에 관심이 높은 2030세대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인사동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다.

문화예산 비중을 2.5%까지 대폭 확대하고, K-콘텐츠 벨리를 조성하는 등 투자를 확대해 10개 이상의 유니콘 문화기업을 만들고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문화외교를 강화하는 등 한류의 흐름을 강화해 한국을 미국과 함께 문화콘텐츠 세계 2강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

다. 문화예술 지원책만 내놓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 2강이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경제 대통령' 콘셉트를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연간 100만원의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전일 노인 공약을 발표하면서 연간 120만원의 '장년수당'을 제안한 데 이어 다시 한번 보편적 지급 형태에 가까운 현금 지원책을 언급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공약 중 '문화기부금 보장'과 관련해 "각종 게임이 국민의 보편적 문화생활로 자리 잡게 이용자의 편리와 권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화예술 정책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게임 분야까지 언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취약한 2030 세대의 관심 분야에 다가서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공약 발표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도 이 후보는 백범 김구 선생이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언급하며 "소위 '하드파워'라는 전통적 국력 외에

문화와 영향력이라는 소프트파워가 중요하게 평가받는 시대가 되는 것을 내다보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새로운 영토로 나아갈 때, 문화가 가장 중요한 영토"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어느 정도 절대적 빈곤이 해결됐기 때문에 문화예술, 체육 등 부분에 대한 세계인의 욕구가 커질 것"이라며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은 이유도 그것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한류가 세계에 진출하며 냉고, 가전제품이 엄청 잘 팔렸다고 한다. 수출의 최고 역군은 문화였던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국가의 대대적 투자와 관심,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소수만 혜택을 보도록 지원하면 문제가 생긴다"며 "예를 들어 미술작품을 구매해도 좀 쪼개서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영화제작 지원도 독립영화 등에 예산을 만들어 지원하는 등으로 해야 한다. 잔뿌리가 튼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 선대위 미래시민광장위 전남본부 출범 대선 승리 4기 민주정부 창출 결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시민광장위원회 전남본부가 20일 오전 무안 남야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대선 승리와 4기 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출범식에는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 조정식 미래시민광장 상임위원장, 주철현 미래시민광장 전남상임본부장, 주선동·배용태 본부장을 비롯한 전남공동본부장단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해찬 상임고문은 축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룰 최적의 후보"라면서 "미래시민광장위원회가 중심이 돼 이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전남이 견인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상임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전남의 삶이 결정되는 중요한 선거"라면서 "앞으로 3주가 중요한데 전남이 앞장서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미래시

민광장 전남본부가 승리의 길에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미래시민광장위원회 전남본부장과 기초본부장들에게 임명장이 수여됐으며, 참석자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시민 지지 강화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잇는 제4기 민주 정부 창출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뜻을 모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대선 여론조사 브리핑

다자대결 이재명 34%·윤석열 33% 접전

NBS 여론조사...안철수 12%

다자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4차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는 34%, 윤 후보는 33%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 10~12일 진행한 직전 조사보다 이 후보는 3%포인트 떨어졌고, 윤 후보는 5%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두 후보의 격차도 9%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좁혀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2%로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로 변화가 없었다. 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에는 46%가 동의했으며, 42%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단일화 후보로는 안철수(40%) 후보를 윤석열(34%) 후보보다 선호했지만,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만 놓고 보면 윤 후보 52%, 안 후보 3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26.5%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흥망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편입생모집

학부 정시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 과	모 집 인 원	
		정 시	정 원 외
인문사회	신 학 과	31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19	
사범	유아교육과	6	
	총 계	70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일반편입 (3학년)	정 원 외 학사편입 (3학년) 우체원고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 학 과	○○	○
	한국어교육학과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부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2. 1. 10(월) ~ 1. 21(금)
· 전 형 일: 2022. 1. 25(화)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제로 36